

# 폐교 남원 서남대,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한다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탈바꿈  
K-컬처 등 3개 학부 신설  
학부당 100명씩 유학생 유치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북대학교의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축하하며 이에 따른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2018년 폐교된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로 탈바꿈 한다.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에 따라 계획했던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가 폐교 상태인 남원 서남대 부지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지난 3월 공동업무협약 체결, 6월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실시협약을 맺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전북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아 지난 6월 예비지정 대학에 이어 최근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지정됐다. 전북대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서 중

남원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폐교 서남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366억원)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124억원) ▲남원 특화산업(판소리, 코스메틱, 전통복기, 드론 등)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조성(114억원) 등이 담겼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에는 외국인 학생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K-컬처, K-커머스, K-과학 기술 등 3개 학부가 신설돼 학부당 100명씩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학생, 산업인력 등) 대상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 이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해 남원 특화산업 분야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부생을 비롯해 산업인력, 창업 입주기업 등 2000여명의 관계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원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 부지 전북대 캠퍼스 설치와 한국어학당 유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남원시는 내년 초 서남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대학협력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체제의 고동과 많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이 지역생태계 복원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비 정읍시, 20만원 추가 지원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의료비쿠폰을 지급한다며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받은 쿠폰은 출산 후 산모가 관내 산부인과 또는 한의원 등에서 출산 후 건강관리를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즉 1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의료비지원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관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시책과 별도로 자체예산 24억원을 활용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과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모의 산후 관리에 특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임부부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화수 시장은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축하금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시설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숲가꾸기 우수기관 전북도 14개 시·군 평가 조림목 보육·덩굴 제거 호평

정읍시가 전북도의 '2023년도 산림자원분야 숲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숲가꾸기 사업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품질 향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를 통해 정읍시는 경쟁 수목과 덩굴류 제거의 적정성, 조림목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호평을 받았다.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 후 3년후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덩굴과 풀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15년 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큰나무 가꾸기'는 15년 이상 된 수목의 밀도 조절 등이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숲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읍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현장 점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했다. 그 결과 올해 790ha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 가꾸기 90ha 등 총 985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했다. 최종호 정읍시 산림복지과장은 "정읍은 산림면적이 47%로 숲가꾸기는 산림을 가지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제림 육성으로 산주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SRT 어워드 '내년이 기대되는 2024 방문도시' 선정

국내 최초 유네스코 유산 7개 보유  
청정 자연 체험·힐링 관광지 인정

고창군이 SRT매거진이 선정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2024년이 더욱 기대되는 방문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군이 국내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보물 7가지를 보유, 청정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자연 힐링 관광지로 인정받아 '2024 방문 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SRT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SRT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구독자 설문과 편집부 및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내년 방문도시 10곳을 선정했다. 고창의 관광명소 중 고창읍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읍성 중 하나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성곽이 특징으로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왜침을 막고자 전라도 백성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움을 모아 축조한 성이다. 성의 둘레는 1.7km, 북문으로 들어가 왼쪽 성벽 위를 몇 걸음만 걸으면 고창읍 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서에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한 운곡람사르 습지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져 희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이다. 습지 데크길은 동물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



심덕섭(오른쪽) 군수가 SRT매거진 관계자로부터 SRT어워드 '2024 방문도시' 선정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높게 세워져 있으며 데크 아래 있는 식물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데크 디딤판 나무의 간격을 일정하게 띄워놓았다. 고인돌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게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 지어 분포해 있고 탁자식, 기

## 고창군,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280t 전량 구매 완료

고창군이 올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280t을 전량 매입했다. 가루쌀은 올해 처음으로 매입하는 품종으로, 지역 1개 경영체가 가루쌀 생산단지 지정됐으며 고창군은 지정된 생산단지 내에서 생산된 가루쌀 280t을 전량 매입했다. 고창군은 가루쌀의 검사규격을 품종 특성과 생산 후 공공비축 매입검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포대벼보다 1등급씩 상향하고, 수분은 수확 후 품질 유지를 위해 수분 함량 기준 최고한도를 14%로 적용했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가격과 동일하게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뿜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해 수요 전망이 밝은 편이다. 6월 말 늦은 이앙이 가능해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에 유리한 품종으로 정부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2026년까지 가루쌀 생산단지를 200개소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수경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된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을 통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가루쌀 산업이 농가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